불교TV 전국방송
마야투어
☎ 02)722-9001
신심의 동불로 불쇠지를 밝히는 성지순례!

법사리를 가득 채울 한정시대!
#888 060-700-0048
불교신문 법보시 후원(정액형 5,000원)
1960년 1월 2일 창간 주간회 발행

불기 2557년 9월 21일(2013년 / 정기 434번째 회에 8월17일)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947호 토

佛敎新聞

종단 운영 2년, 확 달라진 흥천사

타종단과 분규로 쇠락
정녕스님 특명 떠고 주지부임

신도 2명에서 2500가구로
도량 정비, 시민선방 개원

지역사회 큰 기여
각종 복지시설 계속 건립

지난 16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달라진 흥천사의 모습에 "정화 이후 시비가 그치지 않았던 흥천사가 사바촌을 깨웠지 하더라는 등 다단한 불사를 했다"며 감탄했다. 김원주 기자 ccdjw@bulgyo.com

조계종과 태고종 간 분규로 오랫동안 방치되던 서울시 유서 깊은 고찰이 이제는 서울을 대표하는 명찰로 탈바꿈하고 있다. 주지 정녕스님이 취임한 지 2년 만이다.

서울 도심에 흥천사는 한선혜합 공간인 '삼가선원' 을 지난 14일 개원했다. 한학 건물 2채로 조성된 삼가선원은 문화예술인들이 쉴터이자 서울 시민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수행을 권하는 도심 속 선방으로 활용된다. 개원식에는 조계종 태고종구분쟈 신흥사 조실 무산스님, 조계종회의원 정혜스님, 양주해 대법원장, 이재오-주호영 국회의원 등 종단 내외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흥천사 놀라운 부흥을 보여줬다. 아울러 지난 10일에는 경로잔치를 열어 성부구 관내 노인 1000여명에게 점심공양을 대접하고 생필품을 선물했다. 한편 흥천사는 삼각선원 외에도 어린이도서관과 다문화가족센터 등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내년 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불사가 마무리되면 서울 강북지역의 보교중심도량으로 거듭날 흥천사다. 그간 우여곡절도 많았다. 삼각산 기슭에 위치한 흥천사는 1386년 조선 태조 이성계가 동북면이 있었던 함흥에 가셔 회복무이었던 신덕왕후 강 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원찰이다. 흥천사원고기 처음 건 '봉도수륙회 천사' 관련이 걸린 대왕과 고종이 복원한 지장전 등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하다. 그러나 불교정화운동 당시 대처승이 자리를 잡으면서 조계종은 반세기 동안 상징적인 운영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특히 전 주지가 무단으로 토지 매각을 시도하면서 존폐 위기까지 몰았다.

양양 낙산사 복원의 주역이 정녕스님이 문제의 심까따를 풀었다. 2011년 6월 주지에 임명된 스님은 전 주지가 건설사와 맺은 토지매매 계약을 백지화하면서 원고매를 넘겼다. 이어 관내를 정유해 상대 주민들과 원만한 보상합의를 이루어, 사개에 걸맞게 가람을 일신했다. 그해 10월 거주증과 인수절차를 마무리하여 흥천사는 반세기만에 종단의 품으로 돌아왔다. 흥천사의 '귀환' 은 종도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불교정화운동의 큰 축에서 물러서린 공불신사나을, 종단으로 귀속시킨 표훈의 사례였기 때문이다.

정녕스님이 부임할 당시 흥천사 신도는 단 2명이었다. 변화의 속도는 놀라웠다. '종무소에 목상은커녕 불법 한 자루도 없던 텅 "어있지만 어느새 신도 수가 2500가구로 늘었다. 도량을 말끔하게 정비하고 그 가족등심의 신행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지역의 신뢰감을 높인 덕분이다. 대년 개원하는 대규모 경로잔치도 주민들에게 만족을 표다. 일제강치 불사금에 신용카드를 지급 시스템을 도입해 신도들의 편의를 높는 등서에, 재산정비의 핵심인 사찰 재정 투명화에 솔선수범했다. 정녕스님은 급했과 조화,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공간이 불교의 정사정신"이라며 "서울 시민들이 사원임에 살수 있는 휴식처로 복원하겠다는 처음의 원력을 맞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흥천사의 '일취월장' 은 불교의 미래라고 불리는 수도권포교의 거점으로 평가받다.

장영실 기자 kel@bulgyo.com

34대 총무원장 선거, 경선국면 진입

자승스님 출마 선언
"약속 못 지킨 허물 대신 종단 반석에 올릴 것"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사진)이 34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식선언했다. 자승스님은 지난 16일 한국불교여사문화기념관 4층 강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책모임 불교광장에서 총무원장 선거 후보로 만장일치 추천한 것을 수락하려 이렇게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 군종교구장 자광스님, 제4교구본사 월정사 부주지 원명스님, 수원포교원 주지 성관스님, 불교광장 공동대표 지홍스님, 동국대 교수 원광스님이 함께 했다.

자승스님은 "지난 4년간의 성원과 경책에 유덕을 하고, 조계종 34대 총무원장 선거에 나서고자 한다"며 "저의 출마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는 것도 다시한, 이런 이유로도 변명과 자 않겠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신 사부대중에 깊이 죽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스님은 "오랜 시간 갈이 숙고과 면서 총무원장 선거에 나서기로 결심을 내린 지금, 약속을 지키지 못한 허물을 대신해여 종단을 반석위에 올려놓는다는 다짐한다"며 "종단 중흥과 불교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그 "종단의 새 시대를 준비하고 소임자" 로 기어이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인에 대해 떠도는 근거 없는 낭설에 대해서도, "단언컨대 소낭설에는 조도를 삼명시킬 그 이면 있도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해명하며 "종단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일부의 행위에 대해 보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피력했다. ▶관련기사 3면

한편, 자승스님은 종단 운영에 대한 세부 종책을 오는 23일 오후 별도의 자리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11시에 불교광장은 이사장 정념스님 부이사장 지홍스님을 자문위원로 한 총무원장 선거부로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현경 기자

템플스테이의 미래 가치 '조명'

불교문화사업단 국회정각회 의원 10월2일 세미나

박근혜 대통령도 인정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자산인 템플스테이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 시민들 앞에 나를 위한 명복에를 여다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 템플스테이의 미래 지향점이 발굴을 모색해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스님)은 오는 10월2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템플스테이 시장가치 분석 결과 공개 및 세미나' 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템플스테이 시장공리적 가치를 평가하고 역할에 대해 국민과 공유하며, 개개인의 명복수준과 국가를 높이기 위한 방향을 도출해가기 위한 방법이 논의된다.

불교문화사업단과 주호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세균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 는 계량사와 정강문 국립 정가정보센터사에 이어 제 전문가가 주제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의 '템플스테이 시장공리적 가치평가와 발전방향' 발제를 시작으로, 템 플스토그램으로서 템플스테이의 경쟁력 진단과 과제(이종섭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여가문화스포그램으로서 템플스테이 시장적 가치 분석(김주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발제를 마치면 변정길 동국대 교수의 진행으로 토론 및 전문가 좌담회가 이어진다.

김하영 기자 hykim@bulgyo.com

지면안내

'아이이이이' 조계종 모든
현종스님 '신사-'도 주목 7면
지구촌곳곳에서 목소리높
라오스 천지시설 등평기 11면

김유신 감독 다면영화 '장' 12면

국내최대 비구니강원 1850여 스승 배출

1964년 비구니 전문강원으로 1회 졸업생을 배출했던 운문승가대학이 50회 졸업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청도 운문사(주지 일신스님)와 운문승가대학(학장 휴콘스님), 운문승가대학 동창회(회장 우손스님)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2일간 운문승가대학 5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기념법회는 졸업생이 한자리에 모여 선후배 스승과 사이 좌대화 정혜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운문승가대학은 1958년 비구니 전문강원을 개설하고 1964년 1회 졸업생 6명을 배출한 이후 1987년 운문승가대로 이름을 변경 개정했다. 이후 현재까지 185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비구니 전문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행사는 오는 24일 오전10시 입재식을 시작으로 등문회 회의, 조계선의 법, 운문사 DVD 상영, 외주 명상스님의 법문 및 추억의장, 기념 반창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임태규 기자 chef1@bulgyo.com

운문사 승가대학 50주년
24~25일 기념법회 봉행

추석 휴무일 2946호는 9월28일 발행된다

제1회 대한민국 전통문화 사진공모전

대한민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유산 관련 사진 콘텐츠를 발굴, 확보하고 국 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모집요강

- 공모내용 : 한국의 유무형문화재, 명승사적, 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전통문화예절 등 대한민국 전통문화유산 자료 (수록소재 및 설명문 사진, 전통문화의 방주는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에 "문화유산탐방" 참조
- 공모기간 : 2013년 9월 25일 ~ 10월 24일(마감일 당일 접수 한수본
- 공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작품공모 : 디지털 JPG 파일(최소 이미지 3000픽셀 이상 크기) 사진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http://kicphoto.kr), 디지털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
  필 름 : 6x10 인화 고화질 인화사진 접수(전시용 홈페이지 홈페이지 방문 제출, 우편 접수 방문 접수 (110-170)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 연지회관 5층 전통문화사진공모전 담당자 앞
- 응 모 수 : 1인 3점 이내(디지털, 필름 통합) 3점 이상 출품시, 3점 이상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응 모 료 : 없음
- 결과발표 : 입상자발표는 2013년 11월 초(예정) 개별통보 및 사진공모전 홈페이지 (http://kicphoto.kr)와 불교신문 홈페이지(www.bulgyo.com) 공고

→ 공모내용
한국의 유무형문화재, 명승사적, 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전통문화예절 등

→ 사진규격
대상 : 5000명
최우수상 : 300만원
우수상 : 100만원
장려상 : 50만원

http://kicphoto.kr

→ 공모기간
접수기간
9월 25일 ~ 10월 24일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불교신문 문화재청 국가유산청

천주교 불교 원불교 개신교 성지순례

장각원과 함께하는 '불교대장경'

한의원장 법륜법사의 여러분을 모십니다!

불교신문은 동국대학교 정경대학 공동으로 '소통과 공감' 이라는 작별하된 주제로 토요법회를 개최합니다. '법사와 대중이 함께 소통하는 토크법회' '콘스님, 동국대 교수진을 모신 지혜로 북적대 법륜법회' '국대 최고 법과 대원지 두 전문가를 모신 일일법회' 를 연재드리고 이해를 구하오니 동국대 정경대학에 개최하는 법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 기 간 : 2013년 9월 7일(토) ~ 2014년 3월 22일(토)
- ■ 장 소 : 동국대학교 정각원(서울, 필리핀구역에, 원주원구역에 준비)
- ■ 대 상 : 불교신문 1년 이상 구독자
- ■ 문 의 : 010 2390-3095~8
- ★ 지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jeonggak.dongguk.edu)를 참조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 · 동국대학교 정각원